전남도, 방역 취약시설 집중 예방관리

광주·전남 1만명 안팎 확진 지속 3일간 20명 사망

요양원·요양병원 등 검사 강화…4차접종 참여 당부

광주·전남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이 지난 주말·휴일 소강 상태 속에 확산세를 이어갔다. 특히 3일 간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2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방역당국이 취약시설 방역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1일 광주시·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8일 1만1천425명(광주 5천412명, 전남 6천13명), 19일 1만447명(광주 4천712명, 전남 5천735명), 20일 9천89명(광주 4천32명, 전남 5천57명) 등 1만명 안팎을 이어갔다.

같은 기간 광주에서는 18일 3명, 19일 2명, 20일 1명 등 6명이 코로나19로 사망했으며 전남은 18일 11명, 19일 3명 등 14명이 숨졌다. 위중증 환자는 광주 15명, 전남 27명 등 총 42명이다.

3일 간 신규 확진자 수는 소폭 감소세를 기록했지만 확산세 진정 여부는 오는 23일 집계되는 22일 발생 현황이 나와야 정확한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6차 유행이 본격화됨에 따라 전남도는 요양원과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예방관리 대책을 추진한다.

이는 코로나19 하루 평균 확진자가 5천393명 수준으로 최근 1주 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데다,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도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지난 19일 시·군과 부단체장 긴급회의를 통해 방역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취약시설 지도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308개 요양원과 84개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종사자 선제 검사 여부, 환기 등 시설 관리, 개인 방역수칙 준수 등을 집중 점검한다.

종사자 선제 검사도 강화한다. 주 1회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하던 것을 주 2회 신속항원(RAT) 검사를 추가해 총 3회 검사하도록 하고 검사키트를 지원했다. 종사자가 지역사회 감염원과 취약시설 입소자 간 연결고리로 분석됐기 때문이다.

예방접종도 독려하고 있다. 현재 4차 접종 50세 이상 대상자 87만4천명의 48%인 41만9천명이 접종 완료했다. 전남도는 찾아가는 예방접종 등을 통해 접종률 70%인 61만2천명을 달성한다는 목표다.

위중증과 사망 예방을 위해 치료제 처방률 제고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 전남도 의사회, 요양병원협회 등에도 협조를 요청했다.

유현호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도민이 진단부터 치료제 처방까지 한 번에 진료를 받도록 원스톱 진료기관을 계속 확충할 것"이라며 "자유로운 일상생활 및 경제활동을 유지하면서 감염 예방을 위해 50세 이상 모든 도민은 4차 접종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재정 기자

연일 1만 명대를 기록했던 광주·전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주말에 다소 감소했으나 재유행은 지속되고 있다. 사진은 북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 /김영근 기자

道, 에너지 분야 신규사업 발굴 잰걸음

혁신기관 전문가들과 정부 정책 연계 아이템 발굴 맞손

전남도가 새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과 연계해 초전도 도체 시험설비 구축, 원전 관련 산업 육성 등 지역 장점을 살린 경쟁력 있는 국고 건의사업 발굴을 위해 에너지 분야 혁신기관 전문가들과 손을 맞잡았다.

전남도는 최근 나주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 한전 에너지신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에너지 혁신기관의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에너지 분야 신규 국고 건의사업 아이템 발굴 회의'를 나주에서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새정부 국정과제, 에너지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2024년 국고 건의사업과 대규모 신규사업 아이템 발굴을 위한 토론을 벌였다.

특히 김기만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 교수가 '초전도 도체 시험설비 구축사업'을 발제하고, 혁신기관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백원필 한국원자력연구원 박사가 새 정부 원자력 정책 및 세계 원전산업 기술 동향을 소개한 후 전남도가 강점을 갖고 추진 가능한 원전 관련 산업을 육성할 것을 제안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한전 에너지신기술연구원 등 에너지 혁신기관이 기획 연구하는 30여개 사업 아이템을 공유하고 오는 2024년 국고 건의를 위한 상세 기획을 진행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회의에서 제안된 아이템에 대해 기획 단계부터 시·군 관련 부서 및 해당 기업과 협업을 통해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과 부합한 경쟁력 있는 국고 건의사업을 기획할 방침이다.

강상구 에너지산업국장은 "새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에 발빠르게 대응해 지역 에너지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기업 유치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며 "전남의 강점을 활용한 에너지 신산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정 기자

▶1면 '중앙공원…'서 계속

서구 관계자는 "광주시에 지난해 풍암호수 수질 개선 시 원형 훼손 부분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의사를 전달했고 이후 회의가 열리지 않은 상황"이라며 "TF팀 위원을 보강하고 필요하다면 주민과 의원들을 포함해 논의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 관계자는 "각기 다른 주민 의견을 모두 그대로 반영하는 것은 어렵지만 서구 공원녹지과를 통해 접수된 주민 의견들은 취합해 반영 여부를 검토하겠다"며 "시의회와 협력해 주민협의체를 운영하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중앙공원 1지구 부지의 경우 70%가 민간 소유지로 시는 현재 30%를 매입했으며 나머지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 재결 신청을 한 상태다. 토지 보상 문제가 해결되면 내년 1월께 착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홍보수석 김은혜·정책기획 이관섭

대통령실 참모진 개편…안보실 2차장에 임종득

김은혜

이관섭

윤석열 대통령은 새 홍보수석비서관에 국민의힘 김은혜 전 국회의원을 기용했다. 기존 최영범 홍보수석은 '대외협력특보'를 맡아 전반적인 국정홍보 업무를 측면 지원하게 된다.

또 신설된 정책기획수석에는 이관섭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을 발탁했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21일 용산 청사 브리핑룸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일부 참모진 개편안을 발표했다.

김은혜(49) 신임 홍보수석은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 대변인으로 활동했다. MBC 기자·앵커 출신으로 2008-2010년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제2대변인 등을 지내기도 했다.

지난 6·1지방선거에서 경기지사에 도전장을 냈고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후보와의 접전 끝에 0.15%p 차로 패하면서 고배를 마셨다.

이관섭(61) 신임 정책기획수석은 산업부에서 에너지자원실장, 산업정책실장을 거쳐 차관을 마지막으로 2016년 공직에서 물러났다.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거쳐 이마트·SKC 사외이사 등을 맡으면서 민간분야 경험을 쌓았다.

임종득(58) 신임 안보실 2차장은 육사 42기로 합동참모본부 비서실장, 육군 17사단장을 역임했다. 2016년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국방비서관으로 일했다. 안보실 2차장은 국방 상황 전반을 관장하는 자리다.

앞서 신인호 전 2차장이 이달 초 '일신상의 이유'로 전격 사퇴하면서 공석이었다.

/김진수 기자

尹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28%…'부정' 64%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지난 2주 동안 상승한 가운데 여전히 20%대에 머물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9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6-18일 전국 18세 이상 1천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28%,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64%인 것으로 나타났다. 긍·부정 평가 간 차이는 36%포인트로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밖이었고, 부정 평가는 긍정 평가의 배를 넘겼다.

지난 6월부터 내리막길을 걷던 긍정평가는 2주 전 조사에서 24%로 저점을 찍은 뒤, 지난주 25%로 1%포인트 올랐고, 이번 주에도 3%포인트 상승했다.

반대로 부정 평가는 2주 전 조사와 지난주 조사에서 66%로 고점을 기록했고, 이번 주 2%포인트 내렸다.

또 윤 대통령의 취임 100일 국정 지지율은 이명박 전 대통령 다음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은 "역대 대통령 취임 100일 무렵 직무 수행 긍정률은 노태우 57%, 김영삼 83%, 김대중 62%, 노무현 40%, 이명박 21%, 박근혜 53%, 문재인 78%였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 주요 분야별 정책에 대한 평가에서는 교육 분야(긍정 11%·부정 60%)가 가장 저조한 성적표를 기록했다.

이어 공직자 인사(긍정 16%·부정 66%), 경제(긍정 24%·부정 48%), 복지(긍정 27%·부정 45%), 외교(긍정 29%·부정 52%), 부동산(긍정 30%·부정 39%), 대북한(긍정 34%·부정 41%) 순으로 긍정 평가 비율이 낮았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36%, 더불어민주당이 34%를 기록했다. 정의당은 5%, 무당층은 24%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90%)·유선(10%)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11.2%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1면 '송갑석…'서 계속

이 후보는 이날 전남 권리당원 투표에서는 79.02%, 광주 권리당원 투표에서는 78.58%의 득표율을 각각 기록했다. 박 후보의 득표율은 전남 20.98%, 광주 21.42%였다.

전날 열린 전북 권리당원 투표에서는 이 후보가 76.81%, 박 후보가 23.19%를 득표한 바 있다.

당 대표·최고위원 주자들은 전남·광주 경선에 이어, 오는 27일 가장 많은 권리당원이 포진한 수도권(경기·서울)에서 마지막 지역 경선을 치른다.

이어 28일 1만6천명의 전국 대의원을 상대로 투표를 실시, 기존 권리당원 투표·여론조사 결과와 합산해 당 대표·최고위원을 최종 선출한다.

선거인단의 투표 비중은 대의원 30%, 권리당원 40%, 일반 당원 여론조사 5%, 일반 국민 여론조사 25%다.

광주매일신문
"좋은 生活,사랑받는 廣告안내"
가장 알뜰하게
최고의 만족을 드리는 광주 매일신문 廣告.
사랑받는 廣告로 마음과 마음의 만남을
소중하게 이어 드리겠습니다.
광고문의 및 출장접수
▶광고국/☎ 650-2099
650-2071~2
F.650-2016
▶시내지국 및 각 지방지사

구독신청
배달사고
문 의
650-2022

대명OA
취/급/품/목
▫복사기 ▫컴퓨터 ▫FAX
▫레이져 및 잉크젯 프린터
▫전산소모품
▫레이져(토너/드럼)
▫카트리지
▫각종 잉크류
▫복사용지
▫팩스용지 ▫판매
▫임 대 ▫A/S
T.375-5880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시보호, 국내입양 상담
1976년부터 우리지역에서 발생하는 기아, 미아, 미혼모 아동 및 결손아동을 일시보호 후 친부모를 찾아주거나 국내입양 상담으로 양부모를 결연하여 아동들에게 따뜻한 가정을 만들어 주는 아동복지 전문기관입니다.
일시보호, 국내입양 후원 및 자원봉사
광주영아일시보호소
상담문의 062)222-1095, 1096

광주 아시아문화전당 메인상권 빌딩급매
○ 중심상업지역 역세권 코너 유동인구 엄청
○ 대지 810㎡ 9층건물
○ 급매68억(보3억1,000월3,600)부가세별도
*** 주차빵빵, 월세빵빵, 월세는 지정일자에 통장바로 입금됩니다
돈 벌어주는 귀한 빌딩입니다.
급히구합니다 ═ 조건맞으면 바로 계약합니다
상가빌딩, 상가주택, 모텔, 가든, 나대지
야영장, 창고부지, 물류센터부지 등등 찾고있습니다.
[급매전문] 즐거운공인중개사무소
대표공인중개사대표 유재관 010-6495-3787
광주 북구 임동480 LH주공아파트 옆 동운고가입구
등록번호 북구29170-2019-00097

부실채권 못 받은 돈 회수전문
판결문, 공증, 공사대금, 각서
계약서, 입금내역, 각종 채권상담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할 수 있음
채무자 재산, 신용, 주거래은행, 차량 등 파악
실거주지 파악,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연락두절 채무자 파악
개인 법인 신용조사 재산조사만 별도가능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원모집 신입·경력사원
영업팀 / 채권추심팀
▶지사오픈 상담◀
절차적 편의 법절차 준수 시간적 효율
호남지사 062-417-4731
채권추심 전문법인
(주)제이엠신용정보